東大時報

發行人 白性奎
編輯兼印刷人 崔鳳守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 東大時報社
電話 ② 1685・1686・1687

(週刊)
國內 月一部 百十五 貳百 貳拾 定價 讀料 購料

爲佛弟子 常寤自覺 日暮思禪 樂觀一心 (法句經)

東大時報

五日盛況裡에學行

授與式

本大學校大學院 第四回 碩士學位 授與式은 豫定대로 지난 五日上午十一時부터 第十八講義室에서白總長任을 爲始하여 全大學院長및 學處長 敎授 各學名層의 著名貴賓이 多數參席한 가운데嚴肅히 擧行되었다。

그런데 이날 및 나는 碩士學位授與者는 都合四名이며 其間 同學位審査委員會의 嚴格한 審査를 거쳐 이번 學位를 받게 된 것이다。

이날式典은 먼저 三師依에이어 「民儀禮」및 殉國先烈에對한 黙念이 있은다음 大學院長任으로부터의 學事報告와 學位論文審査報告가 있은다음 뒤이어 여러來賓의우리와같은 拍手裝裡에 白總長任으로부터 碩士學位證授與가있었다

이날同式典에臨하신 白總長任은 今番석士學位 授與者에게「앞으로 더욱學究에努力하여주기를바란다」는旨의 激勵말씀이 계셨다

그리고四名의碩士學位 受者를 代表 하여 沈우俊(史學科)氏로 부터 「爲欲 하올는 總長 先生任의 懇曲하신 訓話와 여러스승來賓諸位의 잊을수없는 激勵를 밤사와 實로 가슴이 막히는듯한 感懷이루 形言할수없읍니다」라는 뜻깊은 答辭가 있은다음 萬歲三唱으로 閉式하였다

그런데 今般大學院第四回 석士學位授與는 本大學院석士學位課程을 修了한者로서 석士學位論文을 提出케하였던바 그中嚴格한 審査를 거쳐通過된 前記四名의 석士學位論文論題及 審査委員은 다음과 같다。

▲史學科=沈우俊(文學석士) 箕子朝鮮問題新考察(主審=黃義敦 副審=鄭斗石 조佐鎬敎授)

▲法學科=張斗憲(法學석士) 英國公法에있어서의 法 優位論(主審=로龍鎬 副審 金基洙 金成煥敎授)

▲經濟學科=具哲求(經濟學士) 原價管理論의 展開(主審=李龍澤 副審=具德永 洪性유敎授)

▲經濟學科=金鍾天(經濟學士) 初期 資本主義時代의 道路交通發達 硏究(主審=具德永 副審=洪性유敎授)

그리고 今番석士學位論文 審査委員은 本報 通過經緯를 質問하는 本報 記者에對하여 審査擔當敎授는 各석士論文과같이 말하였다

「貿易敎授敎授談」=立論의 明確性을 넘게探求하여 史料를 많이用한點에있다

「化學敎授談」=英國에 있어서의法優位思想의 變遷과 그理論發展課程을 體系的으로 究明한 功績을認定하여 論文通過가 되었다

「李龍澤敎授談」=現代經營經濟學硏究對象經營行程과 價値增殖行程을重要內容으로 하고또한 經營管理問題는그 重要한 部分을取扱한것으로 보아 本論文이 經營管理的 證明에 對하여 適切하다고認 할수있다(經濟學科)

「具德永敎授談」=通路交通의 發達은 社會的生産力 交通이 社會的生産力 發展에있어서 副次的으로 重要하다는創見과 經濟 發展의 至大한影響을 주고 있다는內容의 體系를 세우려 努力을 엿볼수있다(經濟學科)

(寫眞說明=白總長으로부터 碩士學位證授與받는 光景)

農村巡廻技術敎導

本大學四日倶樂部員二

近代農業技術이 各農村에 普及되지 않고서는農業生産의 增産되지 않고서는農業生産의 根本的인 課題解決이 技術敎育次 그첫거름을 옮김 問題인 이때에 本校四・H 倶樂部硏究員들은 여러 農村巡廻 一回을 무릅쓰고 이 當面한 一線敎導의 任務를 切實히느낀바있어 지난二十 八日부터 三日間에걸쳐 農村 巡廻 하면서 農民 들과 農村의 難問題를 相 互 討論하는한편 各種技術 的인 品種育成과 病蟲害防 除 農機具의改良 多角的農産 技術 敎導에 힘쓰라 (農四) 君을 비롯한 會員 一大學 敎授 一名 一九名 合 (農三) 朴武勳 (農三) △副會長 安鎭 (農三) △總務部長 張根植 (農三) △綜務次長 李正一 (農三) △學藝部長 李源國 (農三) △學生部次長 田春香 (農三) △宣傳部長洪大錫 (農三)

金員이 日曜日을 利用하여 的인 敎導事實施 夜間에는 映寫機로 公報事提供인 「리・버너리・뉴스」等 先進國의 科學的인 農作物栽培法 其他各國農村實態및 娛樂映畫로 部落民들을 啓蒙慰安에 힘썼다고한다

그런데 本校四H倶樂部硏究員들은 九川面뿐아니라앞으로 每週日曜日을 前後하여 農村啓蒙에 繼續努力할 것을 바라는 鄭學生課長은 白總長任의 巨大한年次新築計劃에 依하여 目下雄壯한 建物들이 當面히 新築中인데 이것은 東國學徒의숭지가 될뿐만아니라 우리學園의 重要한 希望目標를 達成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學生課長은 敎育의 目的은 人格의 完成 및 國家 社會의 有爲한 一員을 養成하는 것이다 그는이러한 人格의 完成 및 國家 社會의 有爲한 一員을 養成하는 것이 敎育의 目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南部 諸州에있어서 黑人有權者 中의 投票者率을 보면 「미시시피」州에서는 有權者 四十二萬三千名中 投票者數는八萬三千名 「아리바마」州서는 十二萬六千名中 投票者數는 五萬三千名 그리고 「아칸소」州에서는 有權者 二十三萬三千名中 投票者는六萬六千名밖에 되지않는다고 하다 이와같은 投票率의 現象은 有權者登錄節次에 까다로운 黑人에對한 制限規則에 依據하기때문이라한다

그런데 이번追加卒業生은 學位 없는 一般의 沈鬱을 破壞 事件이 發生 混亂을 防止하기 爲하여 黑白人學生間에 衝突 烈한 血鬪事件이發生 約五十名의 州立警察官 動員 이 事件은 美國에 있어서 全國各地方에 波及되고있는 人種差別問題에 對하여 九月初 美國 聯邦政府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보스톤」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인디애나폴리스」 「시애틀」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 「아칸소」 「미주리」 「켄터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리바마」 「테네시」 「아칸소」 「미주리」 「켄터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 「워싱턴」 「오레곤」 「캔사스」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 「버몬트」 「메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델라웨어」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테네시」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멕시코」 「아리조나」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漢字

……李瑄根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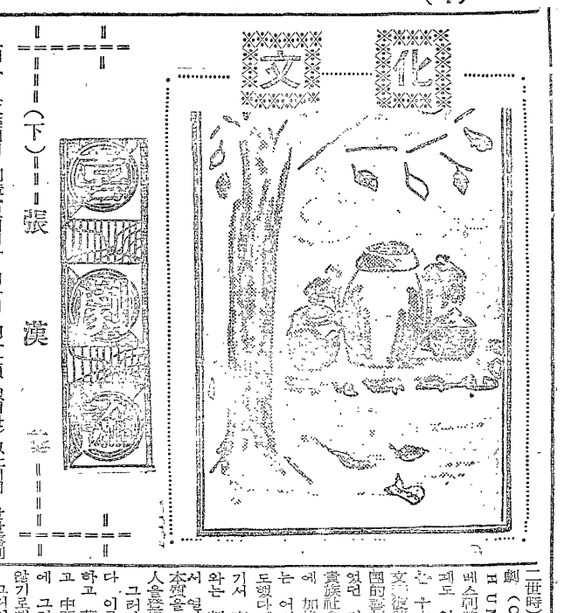
……漢字는 중국의 것이니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요즘 흔히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大學生의 讀書生活

閔 泰 鎬

학교 공부 이외에 무슨 책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대학 생활 1년 동안 나의 고민이었다. 그러한 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때문에 나는 이 1년 동안 그야말로 아무 것도 읽지 않고 그저 학교 공부만 하였다. 그 때 나는 이 1년 동안 무슨 책을 읽었어야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것을 지도하는 것은 교수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한 것을 지도하는 것은 교수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한 것을 지도하는 것은 교수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人工藥國의 創造者로 알리워진 『보-드레르』가 『랜성』과는 反對로 一瞬과 享樂을 뜻하는 絶對主義에 喜劇을 設定하는 그理由도 當然하리라고 생각되거니와 그絶對審劇의 價値의認識은 『보-드레르』의 그러한 內的生活과 結付시켜 볼때 그는또 어느點에 있어서 藝術論上 하나의 큰發見이라고도 말하지 않을수 없다.

戲曲에 있어서는 한人物을 設定하는데있어서 가장 意志와의 鬪爭을 絶對視 하는故로 喜劇이었어도 마찬가지로 한人物을 設定하게되면 그는 끝내 한事件과더부러 하고있으면서도 안으로는強力한 意志와의 鬪爭이 繼續되어있어야만 하는법이다

그러므로 喜劇가운데 登場하는 人物은恒時 웃으면서 鬪爭하고 鬪爭하며 그 있는데 不過하것이다。 이點에 있어서 『모리엘』의 喜劇은 연제나 現實을웃고 비정대는 內的鬪爭에서지었고 『쉐-스피어』의 『한여름밤의꿈』은나두 웃는데서만 그치었던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喜劇은이點에있어서그는兩者의누구보다 한 걸음앞서 연제나作中人物로 하여금 그의生活에보이지않는內的鬪爭을 繼續하게하면서도마음껏享樂하게 하는가 하면또한 편그는웃으면서內的意志와의 鬪爭을繼續하게 하였던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그의 代表作으로는 『平和』 『騎士』 『새(鳥)』 같은 것을 들수있으니 그中 『새』의경槪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作品에서 그의 喜劇中 主人公의 內的意志와의 鬪爭과 그들이 추구하는 理想世界를 吟味하고저하다

『아데네』의 市政을 槪嘆하는 市民두사람이 『아데네』市 를버리고 새(鳥)나라에 들어가서 구름사이에 나라를 세워그곳에 그들의 理想村을建設하고저하는것이다

여기에서보때 그들은 새나라를찾아 가는 앙수현는 葛藤과구름을 헤치고 그곳에 살수있는 그들의理想村을 建設하고저하는 것과같은 이들의 內的鬪爭이야말로 이것은 그들의 內的意志의鬪爭이며 이것이야말로 곧같은 喜悲劇의 消息을同時에 알려주는 그림같은 作品이 아니냐? 그러므로悲劇에 있어서는 겉으로의 웃음과 안으로의 鬪爭이 서로 分立하여 나갈수 있을지 모르나 喜劇에 있어서는 어차피 同一한것이 되지 않을수 없다。

戲曲의 創造者로 알리워진 『보-드레르』가 『랜성』과는 反對로 一瞬과 享樂을 뜻하는 絶對主義에 喜劇을 設定하고 생각되거니와 그絶對審劇의價値의認識은 『보-드레르』의 그러한 內的生活과 結付시켜 볼때 그는또 어느點에 있어서 藝術論上 하나의 큰發見이라고도 말하지 않을수 없다。

戲曲에 있어서는 한人物을 設定하는데있어서 가장 意志와의 鬪爭을 絶對視 하는故로 喜劇이었어도 마찬가지로 한人物을 設定하게되면 그는 끝내 한事件과더부러 골내 한事件과더부러 하고있으면서도 안으로는強力한 意志와의 鬪爭이 繼續되어있어야만 하는법이다

그러므로 喜劇가운데 登場하는 人物은恒時 웃으면서 鬪爭하고 鬪爭하며 그 있는데 不過하것이다。 이點에 있어서 『모리엘』의 喜劇은 연제나 現實을웃고 비정대는 內的鬪爭에서지었고 『쉐-스피어』의 『한여름밤의꿈』은나두 웃는데서만 그치었던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喜劇은이點에있어서그는兩者의누구보다 한 걸음앞서 연제나作中人物로 하여금 그의生活에보이지않는內的鬪爭을 繼續하게하면서도마음껏享樂하게 하는가 하면또한 편그는웃으면서內的意志와의 鬪爭을繼續하게 하였던것이다。

〔五〕 結論

喜劇論이라 題한本筆者는 于先 以上의 簡單한 그發生上의 問題와 그리샤의 代表作家 『아리스토파네스』의作品및그後 『모리엘』로부터맺기 이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모리엘』의 內的鬪爭으로서 一貫한 그의作品이나 『아리스토파네스』의 웃음며 싸우는 그鬪爭 다더한 喜劇의要素를 담뿍 머금고있다。 그러하여 웃음의 본질도 여기 觀察하에 풀게되며 사람들은 이러하여 그것을 喜劇이라 命名하여 가는것이다。

〔六〕 喜劇의 現代社會人을 廢

諸賢의 批評을 參照하면 喜劇의 本質을 말한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敷衍해 가야할것은 作品外에 있어서는 勿論 이를 實地適用化할수있는 現代喜劇 배優들에게 있어서의 한가지크나큰 宿命的課題라고 생각되는것이었기 이點은 打開하여 갈길은 없을가하고 생각하고 또疑路하든結果 筆者는多幸히도 지난七月二十五日밤 國立劇場에서 中國空軍團의 國劇을 觀覽하고 徐恒錫 李光來先生과함께 우리나라假面劇과 山臺劇에있어서의 한場面이 다름場面으로바뀌는그瞬間의 俳優들에 依하여 假面을 製作하는 그 人의 假面劇 (COMEDY OF MANNERS=샤르스를 目擊하고 깊은 感銘을 받었다 이렇듯 深奧한 農村經濟 이만큼 所得이 있었다 이날 이 一日 이 一夜 이 一瞬 이 一言 이 一句 이 一字 이 一點 이 一劃 이 一人 이 一物 이 一事 이 一人 이 一物 이 一事 이 一人 이 一物 이 一事